

# 의평원 의대 인증평가 착수에 교육부·의총협 “학교 정상화 먼저”

### 증원 의과대학 대상 평가기준 강화 의대들, 기본계획 접수 11월 말까지 의총협회장 “학생 복귀 후 평가해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하자, 한 대학 총장이 ‘휴학 의대생’이 복귀해야 평가에 응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평가 거부’ 분위기가 확산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의평원에 따르면, 의평원은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30개 의대에 대해 51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방침이다. 기존 지침은 15개의 기준을 사용했지만, 2025학년도부터 각 의대에서 최대 4배가량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의평원 설명이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의학 교육 평가·인증 전문가로,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긴 의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뉴스시스

대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상 평가는 2~6년 주기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번 평가를 위해 ▲학생 수 증원 규모 ▲교원 수 변화 계획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계획 ▲교육병원 확충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담아 ‘종합 기본계획’을 11월30일

까지 접수해야 한다. 당초 2025년 1월 말까지였지만, 의평원은 이 기한도 앞당겼다.

이에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평원이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해 평가를 마치고 ‘인증’ 판정을 내놓더라도, 막상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다.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회)를 겸하는 흥원회 경북대 총장은 의평원을 향해 “학생도 없는 대학에서 (인증) 평가는 의미가 없다”라며 “학생들이 돌아오고 학교 수업이 정상화돼야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대학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 평가계획안이 대학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안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인증한다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인증 아파트에 어린이 안전시설 지원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곳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를 비롯한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를 점검하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소통창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인증 대상은 3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기존 민간아파트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또 비싱벨·엘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포항시, 英 ‘EKC 2024’서 첨단과학 알려

### 단독 홍보관 운영, 과학인프라 홍보

경북 포항시는 지난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영국 코번트리 워릭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EKC 2024’에서 단독 홍보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적극홍보하고 있다.

유럽 9개국의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개최한 EKC(재유럽 한인 과학기술 학술대회)는 한국과 유럽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16년간 유럽 국가를 순회하며 진행돼 왔다.

이번 ‘EKC 2024’는 포스텍, 현대, LG에너지솔루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정부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내일을 변화시키기 위한 영향력, 혁신, 연결성’을 주제로 과학기술 토론과 비즈니스 세션, 산업 포럼 및



영국 코번트리 워릭대학교에서 개최된 EKC 2024 개막식. /포항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포항시는 단독 홍보관을 운영, 지역에 집적된 우수 연구시설 및 과학인프라를 학술대회 참가자 및 과학 기술자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특히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룬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노력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일괄 재정비

###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내놔 200여곳 일괄 재정비 대상지로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직접 일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 4월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 체계 단순화·통합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도시계획 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추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총 787곳 가운데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곳 등을 제외하면 약 200여곳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용)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7 | 해질 / 19:39

**8월 2일 (금)**  
음력 : 6월 28일

수도권 날씨 **26~3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25/32, 동두천 25/31, 가평 25/32, 파주 25/31, 서울 26/31, 양평 25/32, 인천 26/29, 수원 26/32, 용인 26/32, 평택 26/33, 백령도 24/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서울지락 인 베이징’ 베이징서 서울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31일(현지 시각) 베이징 우커송 안다백화점 1층 중앙로비에서 서울 홍보 프로모션 ‘SEOUL之樂 in BEIJING(서울지락 인 베이징)’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프로모션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다양한 특징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한강 야외도서관 ▲무동력 트레드밀 걷기 챌린지 ▲K-푸드 등을 소개했다. /김현정 기자

# 고양시, 세계 최대 기후변화 회의 유치 총력

### 2028년 개최될 ‘COP33’ 유치 의사

고양시는 2028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대규모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인프라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워, 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COP33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자리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COP33을 유치하고, 더 나아

가 고양시가 개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 국제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처음으로 COP33 유치 의사를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글로벌 공식 국제회의로, 매년 개최된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왔으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이동환 시장은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한국집행위원 자격으로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경찰 “시청역 사고 당시 가해차량 최고 시속 107km” /사진 뉴스시스  
▲‘티메프’ 사태 여파…경찰, 해피머니 발행사 수사 착수

▲코로나 환자 한 달새 5배 증가…백일해·수족구병 등 ‘비상’  
▲서울회생법원, ‘경영난’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음성군 건축자재 제조공장 불, 7명 대피…2500만원 피해 /사진 뉴스시스  
▲외교·복지 감사관 등 부처 10개 직위에 ‘공직 내·외부 인재’ 채용